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3월 미 핵심 자본재 주문, 2020년 이래 가장 크게 성장
- WSJ: 미 소비자들, 일부 물가 상승에 지갑 닫는다
- NYT: 오늘 연준 정례회의 관전 포인트는?
- WSJ: 지난 25년간 미 금리 추세 도표는?
- YahooFinance: 3월 미 무역적자 커졌다…수입 물가 급등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증시와 국채 시장 약세… 오일가 상승세

[이란 전쟁]
- WSJ: 트럼프, 측근들에 “이란 장기 봉쇄 준비하라”

[오일]
- CNBC: 오일가 상승세 계속…브렌트유는 114불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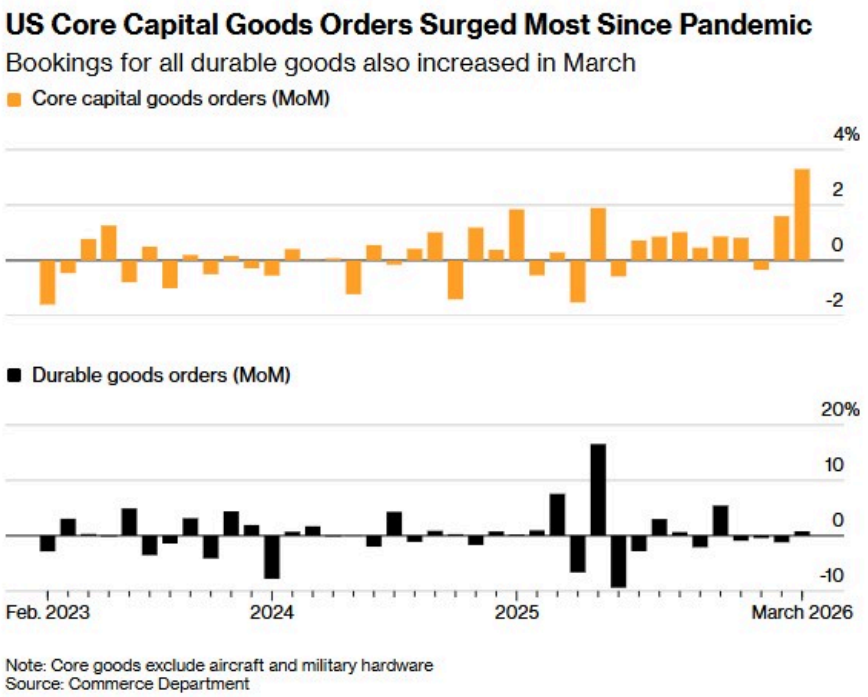
[주택]
- CNBC: 주택 모기지율 상승 불구, 구매 회복된다
- Bloomberg: 미 신규 주택 착공, 1년여 만에 최고치로 증가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re Capital Goods Orders Jump by Most Since 2020
3월 미 핵심 자본재 주문, 2020년 이래 가장 크게 성장

- 3월 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이 지난 2020년 중반 시점 이래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견조한 자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항공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비즈니스 장비 수요를 가름하는 전체 핵심자본재 주문 가치가 2월에 1.6% 상향된 후 3월 들어서는 3.3%로 크게 늘었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수요일 발표했다.
- 한편, 상업용 항공기와 군사 장비까지 포함한 전체 내구재(3년 이상 사용)의 주문은 전체적으로 0.8% 증가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AI 투자와 세금 면제로 인해 올해 비즈니스 장비 주문이 견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관련 원자재 가격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

WSJ: Where Americans Are Drawing the Line on Price Increases
미 소비자들, 일부 물가 상승에 지갑 닫는다

- 소비자들은 물가가 오른 일부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주목한 점은, 인플레이션은 수요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용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
- 실제로 가격이 7%~16% 상승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 사이, 의류·가구·스포츠 용품 지출은 5%~7% 감소했다.
- 세금 환급 등의 영향으로 전체 소비자 지출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이 향후 지출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

NYT: What to Watch at the Federal Reserve's April Meeting
오늘 연준 정례회의 관전 포인트는?

오늘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점들이 관심 이슈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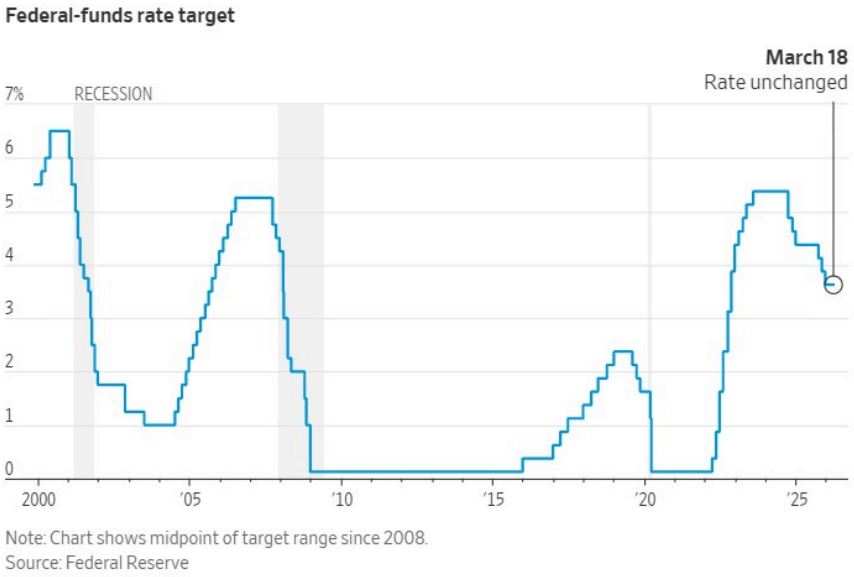
- 전쟁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중동 분쟁의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히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망 혼란이 심화됐다. 고물가가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 속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금리 인상 카드 재부상: 연준 내 논의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추가 인상 여부'로 급선회했다. 고물가와 고용 악화 사이의 딜레마로 이번 회의는 동결이 유력하나, 향후 물가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정책 성명서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 파월 의장 퇴임과 후임 인선: 오는 5월 15일 임기 종료를 앞둔 제롬 파월 의장은 사실상 오늘 수요일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준 본부 개보수

관련 법적 조사 문제로 사퇴 시점이 불투명했으나, 최근 법무부가 조사를 종결하며 후임 케빈 워시 지명자의 인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사

WSJ: How Interest Rates Have Changed Over the Past 25 Years
지난 25년간 미 금리 추세 도표는?

- 연준은 지난번 두 차례 금리 동결을 시행했는데 오늘 수요일에도 현행 3.5$~3.75%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아래 도표는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을 거치는 25년 기간 동안의 연준 금리 추세를 보여준다.



기사

YahooFinance: US goods trade deficit widens in March as imports rise sharply
3월 미 무역적자 커졌다…수입 물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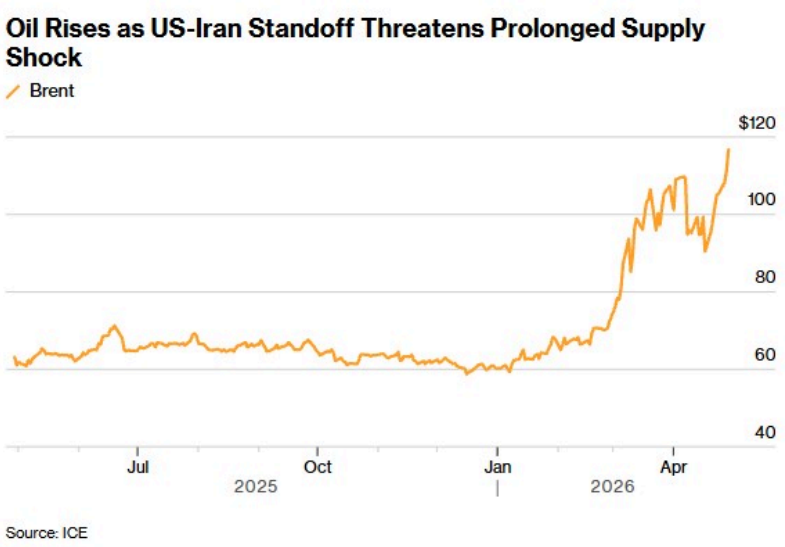
-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서 3월 미 상품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커졌다. 1분기에 이런 무역 상황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지난 3월 미 무역적자는 5.3% 증가한 8백7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오늘 수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8백69억 5천만 달러를 예상했었다. 2월 무역적자 규모는 8백35억 불.
-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석유 수송이 차질을 빚고 유가가 상승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향후 미국의 상품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석유 순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Join Bonds Lower as Oil Keeps Climbing
미 증시와 국채 시장 약세… 오일가 상승세

- 오늘 수요일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유가가 다시 폭등하면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대치가 길어지며 브렌트유가 배럴당 117달러선까지 치솟자, 전쟁의 경제적 여파를 예의주시하며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를 돌파했는데, 이는 고유가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다.
- 한편, 오늘 시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AI 지출 규모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 일부 전략가는 "AI 투자가 확대되고 연준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면 반등하겠지만, 신중론이 확산될 경우 상당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

[이란 전쟁]

WSJ: Trump Tells Aides to Prepare for Extended Blockade of Iran
트럼프, 측근들에 “이란 장기 봉쇄 준비하라”

- 트럼프는 이란 정부의 ‘핵 포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측근들에게 장기 봉쇄 작전 준비를 지시했다.
- 대통령은 결정적인 승리를 선호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쟁을 조기에 끝낼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트럼프는 봉쇄로 인해 분쟁이 장기화하고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더라도, 다른 선택지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봉쇄 여파로 가스 가격이 치솟으며 트럼프의 지지율은 하락했고, 이란과의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기사

[오일]

CNBC: Oil prices extend multi-day rally as Trump issues new threat to Iran; Brent tops $114 per barrel
오일가 상승세 계속…브렌트유는 114불 돌파

- 아랍에미레이트의 충격적인 OPEC 탈퇴와 이란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수요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했다.
- 브렌트유 6월 인도분은 수요일 오전 2.8% 오른 배럴당 114.37달러에 거래되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 6월물 역시 3.3% 상승한 103.18달러를 기록했다.
- 텍사스 중질유는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49% 이상 폭등한 상태다.

기사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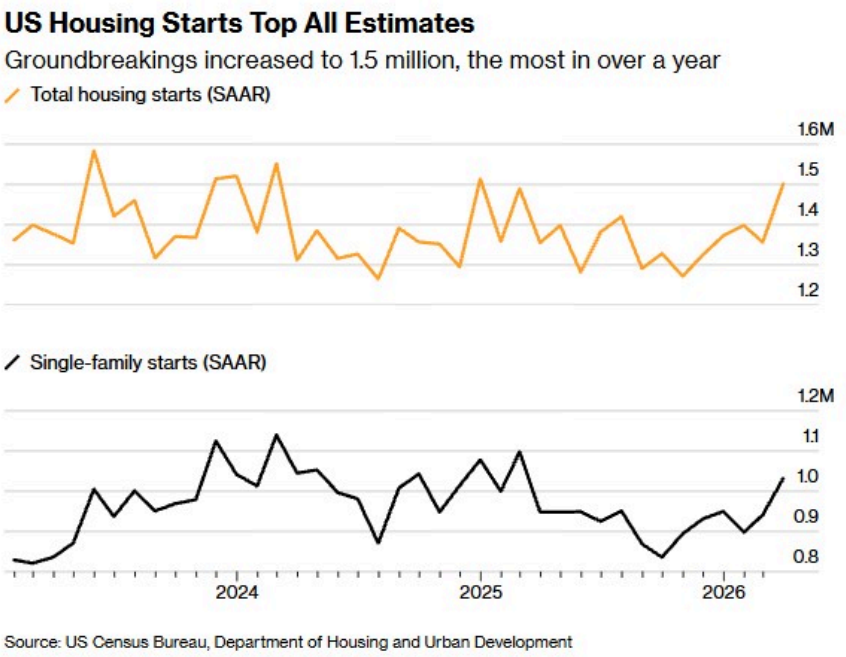
CNBC: Mortgage rates are rising again, but homebuyers are trickling back
주택 모기지율 상승 불구, 구매 회복된다

- 모기지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자들은 서서히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이 6.37%로 소폭 올랐고, 이에 따라 금리에 민감한 재융자 신청은 4% 감소하며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도 1.6% 하락했다.
- 그러나 주택 구매 대출 신청은 봄 성수기를 앞두고 회복 조짐을 보이며 주택 시장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현재 금리가 1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금리에 이미 어느 정도 적응한 구매자들이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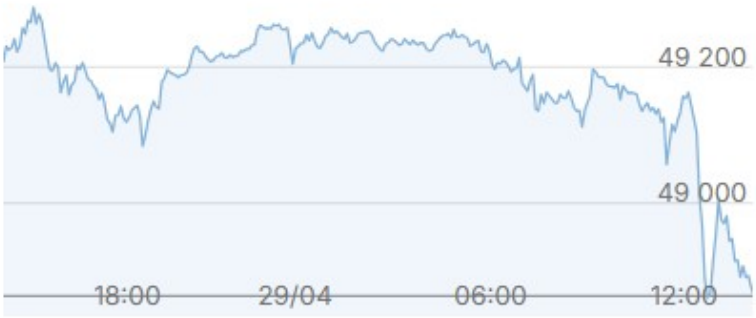
Bloomberg: US Housing Starts Surge to Highest Level Since December 2024
미 신규 주택 착공, 1년여 만에 최고치로 증가

- 3월 미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 1년여 기간 만에 최고치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주택가들은 착공을 확대하고 있다.
- 센서스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10.8%나 상승해 연간 속도로 계산할 경우 1백50만 채에 달한다는 것.
- 향후 건축 비율을 측정하는 건축 허가 건수는 3월에 연간 비율로 1백37만 채로 떨어져 지난 8월 이래 가장 낮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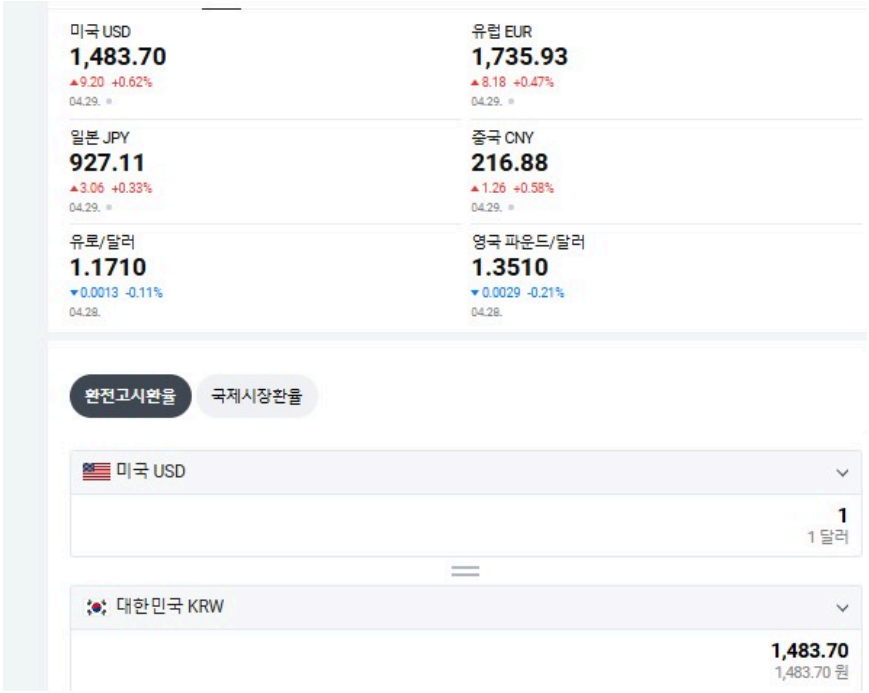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8,854.30	-281.8	-0.57%
US 500	7,126.10	-12.7	-0.18%
Dow Jones	48,863.01	-278.92	-0.57%
S&P 500	7,127.48	-11.32	-0.16%
Nasdaq	24,628.10	-35.70	-0.14%
S&P 500 VIX	18.34	+0.51	+2.86%
Dollar Index	98.652	+0.176	+0.18%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